제343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6월23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 1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남인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양성평등의식 문화의 확산,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위기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의 보호 지원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위안부 문제 등 정책적으로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업무현황보고가 진정으로 여성과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

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현황을 저희가 보고받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위안부피해자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회의는 인터넷 TV 팩트TV에서 회의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그리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를 해서 오후 10시부터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를 맞이해 처음 개최하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고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맘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평등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 학교 밖 청소년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 폭력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하고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함께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과 소관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현 차관입니다.

박현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임관식 권익증진국장입니다.

황윤정 대변인입니다.

김중열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외의 산하기관장은 업무보고에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현숙 기조실장이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박현숙 기획조정실장 박현숙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2016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부 기구는 2실 2국 3관 1대변인 26과이며, 5개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253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예산 총 규모는 예산 3330억 원, 기금 3131억 원을 합하여 6461억 원입니다.

6쪽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23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기업·조직문화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 경제단체와 기업체 등에 보급하고 기업 및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 포럼을 실시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확대하여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1800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예비아빠 수첩을 제작하여 산모수첩과 함께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공공시설, 공공디자인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50개소로 확충하고 특히 1 대 1 진로상담,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연계 등 질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훈련을 도입하여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창업훈련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문화·예술·체육 등 여성 대상 교육이 취약한 부분에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인재풀을 여성인재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경력·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청년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도록 '관리직 목표제' 수립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위원회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하는 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 달성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을 점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여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2011년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이어 올해 신규로 라오스를 지원하는 등 개도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생활권 수련시설 중심의 직업·진로 체험을 보다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국립생태안전체험센터 등 전문화·특성화된 국립 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해 나가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하여 청소년 활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발견에서부터 자립 지원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중단 사전예방 및 정보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기초학습 역량제고 및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진로설계, 직업훈련 등 원스톱 취업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정기검진에 잠복결핵검진 포함하여 금년부터 새롭게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전담 상담사를 17개 시도에 상시 배치하였으며 초등생 등 저연령층의 위험군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및 가족치유캠프를 확대하는 한편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학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가정에 패밀리멘토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음반·인터넷·게임물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연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 4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8월까지 시범평가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의 정책과제인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기관을 78개소로 늘리고 지원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가정이 겪는 일·가정 양립 고충 해소를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가족 서비스를 8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3월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가정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 15일 '가정의 날'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자녀양육을 위해 지난 4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설하고 금년부터 혼인관계자 자격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 주소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고 양육비 이행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 개선

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책 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난해 6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학령기 자녀에 대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하여 해외교류 글로벌 취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지난 4월 개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다누리배움터를 통해 성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용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전문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초등 고학년에서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 실적 점검을 강화하여 여성 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최초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 내 성폭력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등 주요행사를 계기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여성 폭력 지원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상담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등 성폭력 사건 처리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월 생활안정지원금은 126만 원, 간병비는 지난해보다 39.4% 증액한 월 105만 5000원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보수 등 피해자 개인별 환경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 인식 제고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 여성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과 온라인·방송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여성비하 혐오 표현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개 범위를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 및 부장교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자의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공공기관별 여성 폭력 예방지침 수립을 의무화하며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성폭력 방지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복지부와 협력하여 교육대·사범대 인성교육 과목과 초·중·고 교과과정, 부모교육 매뉴얼에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학생·부모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모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교육주간 지정 및 부모교육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 개설을 권고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모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향후계획입니다.

중고생 대상으로 교육 취약시기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가정 대상으로는 산부인과 병원 산모프로그램을 통한 부모교육과 시·도 교육청별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예비군 교육 준비시간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 영상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전문상담자가 개별 방문하여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가출 입소 청소년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신청 시 필수의약용품에 위생용품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관련 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및 위기 청소년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용품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0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이후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개선 및 양성 평등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교육과 진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교육 등 양성평등 주요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등 7대 분야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교원들의 양성평등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을 통해 양성평등교육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을 비롯하여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진흥사업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임직원은 더욱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이사장 신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가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이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줄 수 있는 큰 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안전이 담보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 활동의 활기를 되찾는 것을 가장 큰 책무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정착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5개 지역에 전국에 국립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센터와 민간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이라든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사업 등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상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여가위 위원님들, 이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귀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인성과 건강한 체력이 골고루 다 갖추어진 균형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권승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권승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20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 또 가정 해체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원은 우선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214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총괄하면서 컨설팅과 교육 및 연수 등의 지도 지원을 통해서 87만 명에 달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3000명에 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문제 영역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전국 20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무주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치유시설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함께 올해에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을 위한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여가부로부터 새롭게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미디어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태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가치의 확산과 위기가족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수행하고 저출산, 맞벌이 증대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증진 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건가원 내에 함께 설치되어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 또 윤종필 간사님, 정춘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여성 인권과 우리 진흥원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컨설팅을 진행해서 여성 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허브기관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이 비전 아래 우리 진흥원의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여성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기관 운영과 피해자 지원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개최 또 SOS누르미 앱 운영, 정책 전문지로는 '여성과 인권' 발행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여성 폭력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민간 자원을 확보해서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국제개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첫 번째 질의는 7분으로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2차 질의를 실시하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질의 이후에 따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분 내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여성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은희 장관님, 권용현 차관님과 여가부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주무 장관으로서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의 소위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이 합의를 보면서 무능한 국가권력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인권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능한 국가권력 때문에 전쟁터에 성노예가 된 것이 1차로 그 인권이 훼손되었고요. 64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권이 침해된 것이 2차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3차에 걸쳐서 여성들의 인권을 훼손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외교사에도 길이 회자될 것 같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여성인권운동사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2월 28일 합의의 당국도 아닌데, 이게 외교부가 당국인데요. 성격도 불분명한 일본 정부의 돈으로 만들겠다는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 여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치유와 안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그 책임에 따르는 일본 정부 예산이 출연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재단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해 온 그 뜻을 그대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 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일단 당사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요. 이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인권 이 부분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님이시라면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여성들의 의견들을 귀 기울이고 국무위원들한테 여론을 전하고 또 그 여론을 통해서 7월 재단 출범 계획을 철회하도록 국무회의 등에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한일 간의 협상은 외교적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협상을 번복하는 것은 국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료와 치유 그리고 회복에 정말 진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당수 부분은 이 합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제 돌아가신 분도 유족들 뜻에 의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분 한 분씩 자꾸 돌아가고 계시고 계십니다.

장관님, 저희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2014년 조윤선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위안부 기록 등재 사업 관련 예산 4억 4000만 원을 올해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14년부터 여성인권진흥원에 사무실을 내주고 작년까지 예산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작년에 유네스코 기록 등재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문화재청의 조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 차원으로 민간 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관련된 기록에 대한 자

료들은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애초에 민간의 일이었다면 왜 여가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요. 지금도 17년이라는 구체적인 등재 목표 시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당시 2014년도에는 초기 시작 단계였고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2014년도까지 그 자료 축적이 다 되어서 정부로서는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본 위원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가 12월 28일 합의에 의해 변화된 사정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여가부의 계획대로 이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목표로 예산도 집행하고 지원을 계속 하기 바라는데, 장관이 나서서…… 내년 예산을 현재 전혀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기재부 등을 설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더 이상,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 등재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유네스코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는데, 생리대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생리대 지원 계획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청소년 정책 주무 부서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세 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시급하게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쉼터 등에 지금 위생용품을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2%로 OECD 가입국 평균인 60.8%에도 못 미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현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에 대비해서 대졸 신입사원이 제 몫을 하려면 평균 18개월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1인당 연간 6000만 원의 교육비가 소모된다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만 명의 경력단절녀 곱하기 6000만 원의 소요비용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지금 120조가 소실되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120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김순례 위원 지원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원법은 여성 경

력 단절 관련한 지원법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리고 그 실제적인 지원 시스템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서 그리고 ……

○김순례 위원 새일센터?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리고……

○김순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147개 새일센터를 통해서 작년도만 해도 28만 명이 이용을 했고 또 동행 업무까지 하면서 14만 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조금 일터가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취업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경단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력단절에 관련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은 제가 요구하는 답을 지금 못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12조에 보면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딱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제 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순례 위원 여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예, 있고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정책들은 사후 성격이 아주 강하고, 예방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12조와 같은 딱 한 줄의 명문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뭐……

○김순례 위원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우리의 노력이 자구적으로 필요합니다.

OECD 2016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출산·육아휴직, 양질의 보육 서비스, 성별 임금격차 해소, 남성의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 부처가 조금 다르더라도,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력 단절 문제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혹은 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여가부의 중책적인 계획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이것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금 거기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가정 양립 제도입니다.

○김순례 위원 예, 압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것을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대책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것을…… 가칭 '웰컴 리턴(welcome return)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즉 이것은 복귀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조절, 즉 탄력근무제도 도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이 의견을 여가부에서 가

급적 적극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9만 명 정도인데 이것이 15년도 5월에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지금 구제를 못 받고 있고요. 5만 명이 아마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법 개정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3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숫자의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래서는 안 되지요.

○김순례 위원 어떻게 대안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시행되고,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2014년보다는 2015년에 2배 가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순례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지만 현재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가 연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학업 장기결석 전담 관리 기구에도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 최소한의 기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그런데 대단한 모순은 뭐냐 하면 사실 학교를 이탈하고 현장 밖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현실적으로 강제적 규정이 아니면……

○위원장 남인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19대 여가위 첫 회의 회의록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문제가 수원 귀가 여성 살해사건, 그리고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 통영 초등학교 살해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최근 4년간 4대 강력범죄 피해자 현황을 볼 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월 17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25일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또 29일 수락산 살인사건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 증가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여성 혐오에 기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최근에 특히 5월 중에, 5월에서 6월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여성 관련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과도하게 여성 혐오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

다마는 앞으로도 여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지나치게 여성 혐오범죄다라고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여성 혐오 범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여성을 혐오한 여성 혐오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실제로 여성 혐오적 성격의 범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태섭 위원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체 여성 피해자 중에 강력범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강력범죄 통계는 매년 나오는 것이지만 혐오 범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여성 대상 범죄를 주로 조현병,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 조현병 환자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을 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행정입원·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범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부산 묻지마 폭행사건 등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행정입원·강제입원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이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때 6월 1일 날 법질서관계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약을 중단한 상황에서 과대망상증이 다시 재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었고 그 이후에 여성 관련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전반, 여성 폭력에 대한 대책이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더 논의가 되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구속되어서 아마도 중형을 선고받거나 병원에 갇혀 있으면 다시 재범을 저지를 염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말하자면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이 가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던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 정신병에 의한 것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그 추모 행렬을 보면서 내놓는 대책이 소위 말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은 일반인에 비해서, 말하자면 정신적인 장애나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금태섭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4%라고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의 범죄율은 그에 비해서 9배가 높은 3.6%입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의 비율이 0.4%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러면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나 강제입원 등의 대책 외에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따로 내놓는 여가부 혹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그때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하나에서 나타난 문제가, 대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여성 강력사건이나 여성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책이 다 별도로 그날 논의되었던 것은 조현병 환자는 일부였고 나머지 부분도, 환경 개선이나 신고 대응 이런 부

분들 대책이 그날 추가로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 그것을 놓고 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환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신경정신학회에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님 그 부분 사건에 대해서 일부 그런 증세 때문에 나타난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대책이지 여성 전체 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은 그 외에 환경 개선이나 신속 대응하거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김삼화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이 93년 제정되어서 2001년부터는 그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법률 1조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고, 2조를 보면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하나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은 2013년 10월에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부서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때 연설을 한 것 중에 제가 일부를 요약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수많은 선언과 결의안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이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위안부 문제다.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당사국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당사국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지난 24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했던 이유를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게 원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합의는 한일외교장관이 이런 국민의 뜻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외면하고 외교적 성과 달성에 급급해서 한 합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합의에 반발하고 있고 최근에 제네바까지 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특히 또 하나 일본 정부는 합의 직후에 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면서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의 보고서를 올해 1월 유엔에 제출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삼화 위원 그리고 자민당 간부가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으면 지원재단 재원 출연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소녀상 철거와 지원재단 설립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보도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삼화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관님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한 10억 엔, 그 10억 엔의 성격이 배상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로금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본이 그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배상금도 아니고 위로금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김삼화 위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이라는 취지의, 좀 애매하지만 배상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가부가 지원재단 준비위원회와 함께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가부도 이것을 배상금이라고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하에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태로,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준비 단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것은 이런 협상에 관련된 내용과 재단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물어봤던 내용, 일본 정부가 그 직후에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쟁범죄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자민당 간부라든가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한 내용하고는 엇갈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 번도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공식 사과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인 자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무를 가진 여성가족부가 지금 일본 정부가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또 한 번도 공식 사과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지원 받는 돈을 나서서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재단 설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을 중단하고 외교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양국 간의 외교적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권미옥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소득 청소녀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깔창 생리대를 이용한 것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쉼터나 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배치하겠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당장 현재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일단 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이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쉼터에 위생용품을 배송을 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위원장 남인순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삼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위생용품도 그 부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생리대 문제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인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일단 3개 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회의장 벽면을 가리키며)

장관님, 저기 그림 한번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김순덕 할머니가 '끌려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인데요. 저 그림이 여기에 왜 걸려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적 피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장소에서 저 그림을 여기 걸어 놓은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이 죽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이 위안부 문제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유네스코 기록 등재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때 기록 등재가 제대로 되려면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또 여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요. 아까 계속 어떤 얘기 하셨느냐 하면 장관님께서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 인식을 제고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역사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물들을 남겨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니라 전시 세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바꾼다고 해도 지원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 기관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요. 저는 거기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말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서 그 방안을 6월 30일까지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이 부분은 민간 자체로 지원을 하고 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춘숙 위원 자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겠지요.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치유와 회복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가해자에 의한, 일본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관님, 12월 28일 날 합의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일본대사관 앞에 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추운 겨울을 다 지내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직접 얘기는 나눠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정춘숙 위원 왜 나눠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무 장관께서 아셔야 되지 않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합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찬성과 반대의 각각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역사에 아마 기록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사과 그리고 역사적인 남김으로써 뒤 세대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유네스코 등재하는 문제,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이것은 이미 제가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정춘숙 위원 장관님, 저희가 그냥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으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 폭력 관련해서 통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몇 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매년 4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가 살해한 경우는 상해치사로 기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성이 피해자인, 여성이 죽은 피해자인 상해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혹시 남편이나 애인 이런 친밀한 관계의 남자에 의한 살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사실은 장관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봤는데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장관님이 알고 계시면 저희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일단 여성 살해와 상해치사에 의한 여성의 피해 혹은 가해 부분들이 공식적인 통계로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검찰·법원까지 연동되는 이런 통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통계의 구축으로 출발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관계장관회의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여성 대상 범죄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국감 전까지, 사실 저는 상당히 디테일한 것을 원하는 것인데요. 국감 전까지 여성 폭력 관련 통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년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최초로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 관련한 통계는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이런 게 정교한 통계 정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앞으로 보다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아동·청소년·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여성인권 증진과 성 평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 국가기구가 출범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1988년도에 여성 정무장관 시절부터 여성특별위원회,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예, 1988년이 시초지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발족한 것이 2001년이기 때문에 16년 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는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추진력 있는 모습 보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입니다.

○박경미 위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국가 차원의 배상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작년 인사청문회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진일보한 합의라고 하셨고요, 오늘도 답변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이게 일본 외교부의 발언인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 오늘 한 분 돌아가셔서 이제 마흔한 분 남으셨습니다. 생전에 가해국인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사죄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없는 합의를 서둘러 해 준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량한 돈 10억 엔에 소녀상을 팔아넘기고 영원히 침묵해 주기로 한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여가부 주도로 만들고 있는 재단, 시민들은 이 재단이 필요 없다면서 10만 명이 단숨에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의기억재단'이라는 순수 민간 재단을 만들고 이미 정부 재단보다도 빠른 지난 6월 9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들 쉼터를 운영하는 정대협에서는 지난 5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뜻으로 운영비로 지원되던 1500만 원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13일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구순이 넘은 김복동 할머니께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시면서 '도저히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이런데도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진일보한 합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양국 간의 외교적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이기는 하나 일방적인 합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 이전에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리고 단체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합의 바로 전날까지도 관련 단체와 이 부분을 논의해서 최대한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경미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한 합의로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이 지적하셨듯이 유네스코 등재 사업 이것이 갑자기 공공 영역에서 민간 차원 영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것은 작년 합의 이후 여가부가 몸 사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주기로 한 10억 엔, 배상금이냐 아니면 위로금이냐, 치유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소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배상은 보상이나 치유, 위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이 10억 엔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배상금입니까, 아니면 치유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하에…… 책임을 통감하고……

○박경미 위원 아니요, 우리 여가부에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예산 갹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재단의 준비위원장인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님이 아직 받지도 않은 10억 엔의 돈을 놓고 위로금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상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을 맨투맨으로 만나면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설득 중이라는데요. 참으로 웃기는 상황입니다. 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설득하지 않고 피해자를 국민으로 보호해야 할 우리 정부가 설득하고 있습니까?

재단 준비위의 인사도 문제입니다. 우선 김태현 위원장님, 이분 국책연구기관장 출신에 여성가족부 자문위원에 그리고 2007년과 2012년에 현 정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분이 위안부 재단 준비위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위원장뿐 아니라 재단 준비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10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전직 현직 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위안부재단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5월 31일에 열렸는데요, 그것 회의록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원하자마자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날 논의된 게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박경미 위원 없어서 회의록을 안 남기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경미 위원 개인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회의록은 반드시 남기는데 이런 국가적인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냥 위원장을 호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도 회의록은 남기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수요집회 역사가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1000회가 훨씬 넘었습니다.

○박경미 위원 92년 1월에 시작되어서 어제로 1236회 차를 맞았습니다.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를 쏙 빼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준비위를 꾸린 것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위원장님이 해명하신 대로 10억 엔이 배상금이라면 피해 할머님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될 돈이지 재단을 통해서 간접 집행할 돈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배제된 보상금 성격의 치유나 위로금이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실패한 합의라는 점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어떤 경우에도 재단이나…… 독일의 경우도 그렇지만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왔지 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새누리당의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선 나라의 기초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차관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 국가가 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계십니다. 혹시 장관님 우리 장차관급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2015년 기준으로 6.6% 정도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비교적 높은 형태입니다.

○송희경 위원 비교적 높다 하시더라도 또 아까 업무보고의 13페이지를 보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를 40%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개선권고 조치를 했다라고 성과보고를 하셨는데 개선권고 조치한 이후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98년 이후로 정부 여성 위원 참여율을 죽 조사를 해 보면 과거에서는 단 한 번도……

○송희경 위원 많이 개선된 것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단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34%를 넘었고요, 올해 37%가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송희경 위원 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

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부위원회라든가 공공대표성 의사결정직에 여성 인재들을 추천하는 입장에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와 협업입니까, 아니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이런 부분은 협업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특정성별영향분석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양성평등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송희경 위원 정책이 있겠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만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당연히 그것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또 이런 여성 인재가 사회로 진출되려면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십대 기존 기혼 취업여성에 대해서 경력유지가…… 우리가 인재를 키워내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조치를 위해서 원하는,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1위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 또 2등이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3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좀 조성해 달라. 세 가지 다 육아입니다. 육아가 해결되어야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모두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고요. 또 경력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온 범부처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마음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데 있어서 극복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더니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정부 통계도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고용정보원은 21.3%라고 발표했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은 13.2%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무부처도 이렇게 통계가 다른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육아에 관련된,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를 직접 확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 부처의 자료를 관리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정부통계는 통계청에서 전부 관할을 합니다. 다만 우리 여성가족부는 역대 어느 부처보다 통계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통계 데이터 생성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지금 과거에는 통계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 통계자료가 나오고 나면 그 집행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주도적인 집행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서가 부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지원 법안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어야만 경력이 유지될 수 있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텐데 휴직 이후의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는 고용부·행자부·인사혁신처 각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하시는 것이 어떤 단위로 발표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통계자료 생성은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연 단위 혹은 3년,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런 모든 자료들은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가정 양립 지표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보육이나 가족친화 휴가 그리고 노동시간, 여성 인력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통계청의 자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원래의 목적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여성 인재의 비율을 높이고 또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의 일하는 권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주도적이고 세밀한 통계조사 자료와 그 이후의 집행 내용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인재 리더들을 확보하는 것도 한 축이 될 것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도 한 축인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은 육아의 문제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인재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여성 인재가 되기 위한 많은 후보군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 또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내년도에 본격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시기적절하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일정상 너무 늦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과 좀 더 면밀한 집행을 위한 계획을 또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제가 간단하게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정책이 일·가정 양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육아휴직자 수는 가장 역대 정부, 특히 최근에 들어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올해 4분의 1분기에는 57.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활발하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인재 DB는 기준이 국가인재 DB로 계속 저희가 DB를 생성하다 보니까 아직 양성된 여성 인력이 좀 부족한 형태라서 국가인재 DB보다 조금 완화해서 여성 인재 DB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에는 작년까지 중앙 단위로 해서 인재 DB를 형성했는데 지방까지 넓히면서 좀 더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중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장관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인사 대신 간단한 말씀 한마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여성 혐오 범죄는 여성을 차별해도 되는 대상 그리고 여성에게 폭력을 가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사라진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더 철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매우 놀라운 홍보물을 받아 보았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제도를 실시하면서 배포한 홍보물이었는데요. 그 홍보물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기가 아닌 이상, 무술 유단자가 아닌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혼자 가기 무섭고 두려워진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홍보물이 회수되기는 했지만 못생긴 여자는 혼자 다녀도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여성 비하, 여성 인격을 비하하는 일이 아직도 정부 단체나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에 비해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은 아직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들과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피해자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반복됐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2015년 문화재청과 함께 이제 이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점이?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10월 정도로……

○이정미 위원 10월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2015년 10월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016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유네스코 등재 예산 4억 4000이 포함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2015년 10월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여전히 예산안에는 이것을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10월에 결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필요할 부분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좀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겁니다.

○이정미 위원 12월 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31일 날 여성인권진흥원의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종료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을 폐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2월까지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 기점으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중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산은 올려놓고 12월 예산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사업 중단은 또 12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그 사업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추진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가 12월 28일 날 한일 간에 협상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 사업을 중단하자라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개의 일간지에서 이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유네스코기록 등재를 중단할 것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측의 발표가 있었고, 여성가족부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발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닙니다. 그 당시 2개의 일간지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 측의 발표가 있었고, 그것을 여성가족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28일 날 그 합의 직후에 결국……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고 등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12월 28일 바로 직후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2015년 10월부터……

우리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하려면 문화재청에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컨설팅에 나온 얘기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기록물 등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구로 넘기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정미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10월부터 그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진행을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 부분을 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미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10월 달에 그런 평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2월 예산국회에서 그 예산 조정이 있었어야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뭐……

○이정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까지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12월 28일 날 정부 간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여성가족부 스스로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민간 차원에서의 등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관련된 기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걸어놓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그 전에 이 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합의를 했다고 해서 내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최근까지 여성가족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시고 이 홈페이지에 있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내리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된 질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가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질문을 좀 할 것이고요. 시간이 남으면 다른 질문 하나 정도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되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었고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답변서를 내면서 그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서를 냈어요.

그런데 대립하고 있는 것이 뭐냐?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첫 번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965년에 있었던 소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현재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게 무엇이냐?

여전히 일본은 강제 동원 안 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설사 강제 동원했다 하더라도 1965년 협정 협상에 의해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얘기하고 있다면 뭐가 합의가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이게 계속 되는 말씀인데요.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하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 이 부분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을 하겠다'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 대통령비서실장의 서면상으로는 전혀 합의된 게 없는 것이거든요.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전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내용에 담겨 있으니까, 그렇다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지금 재단을 만들고 끝났다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으니까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로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자 교육부가 처음 내놓은 대책이 뭐였느냐 하면 '여교사 대신에 남교사를 보내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여성이다라는 낙후한 인식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교육부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주민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첫 해외순방 당시에 인턴 성추행 논란이 있었어요, 윤창중?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주민 위원 그때 나왔던 처방도 사실은 '여자 인턴이 아닌 남자 인턴 채용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전반적으로 여성 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낙후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이 달 초에 대통령 프랑스 순방 당시 통역사 모집할 때는 '용모 중요. 예쁜 분'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채용하겠다고 한 적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정도로 낙후된 여성 인식을 정부 부처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논평 하나 낸 적이 없지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했고 또 사실 과거에도 각 정부 부처별로 양성 평등한 의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경고를 촉구했고, 국무회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여성 인권을 지켜야 될 주무 부처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렇다면 같은 정부 부처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보았을 때 약간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미리 감지하고 발굴해내고 적절히 권고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맞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미처 정부 간 혹은 부처 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이에 잠깐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양성평등한 의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의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하고도 초·중·고 또 대학교까지 그런 양성평등한 의식이 기본적으로 문화로 정착되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개 대학의 인권센터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예방센터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이게 확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민 위원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를……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것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확 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전남 섬마을 여교사 관사 성폭행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국 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관사 이용실태와 여교사 현황조사들이 활발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또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료 등은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명의 여교사가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서·벽지나 산간오지에 여교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중보건소 그리고 우체국에 있는 우체국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의 파견 출장소 등에도 지금은 상당수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물론 발표가 된 사항들이 있지만 지방교육청들을 통해서 저도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전국 도서·벽지 지역 552개 학교가 관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 중 여성 교원이 있는 관사가 370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성만 또 살고 있는 관사가 39개였는데요, 이 중 20개 관사에는 CCTV, 방범창, 경비 시스템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절반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래서 일차 대책으로 우선, 어쨌든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서 CCTV나 그리고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우선 일차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보라 위원 이런 노후화된 관사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기관이 물론 행자부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을 그쪽에 파견을 안 하겠다 이런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도서나 산간벽지에 성폭력이나 폭력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지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강화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물리적으로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여교사뿐만 아니라 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관사를 또 이용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여성가족부에 적용되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제5조제1항에 보면 사건 발생이 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신보라 위원 또 6항에 보시면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또 7항과 8항에서는 점검결과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장에게 요구를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폭력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과 역할이 법으로도 잘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여성가족부에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이 된 만큼 여성가족부가 힘써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관련해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과 그리고 현재 실제 실천이 다소 맞지 않고 법 따로 실천 따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밀접하게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공개도 하고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개선이행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완전 강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이행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다른 부처에서 연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번 여교사 성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앞으로 대책을 그렇게 보고도 받고 시행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꼭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실태조사 원래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사기간인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군이나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과거에 하지 않은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군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반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과거 실태조사에서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도서·벽지에서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된 만큼 올해에는 도서·벽지 여교사나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성범죄 인식의 수준 그리고 관사 안전 현황 등의 내용도 필수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여교사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또 무엇을 그런 여교사나 교사분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것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또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성폭력 실태조사의 그러면 주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여가부가 어떤 역할과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미옥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무 일정이 워낙 많으셔서 파악을 잘 못 하시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되어서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실태가 가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용어라든지 보도의 태도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수준……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민원이나 신고에 의한 건수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양성평등 위반 건수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시더라도 2012년 85%에 달하던 비율이 지금은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를 요청한 건수도 단 2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그런데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랑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문미옥 위원 이런 것을 반성하고 맺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떠한 심의와 관련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양성평등 모니터링의 심의 이런 것이 적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모니터링 집계를 강화하는 것이 성과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만 강화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해 놓으니 그냥 건수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심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목표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왜 여성가족부가 3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성평등 위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지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여가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인식이 개선되어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심의해서 이게 위반했다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매한 모호성이 있어서 위반 건수로 최종 확정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도 특별히 MOU를 맺어서 과거보다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모니터링 요원들도 저희가 다시 교육을 했던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MOU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모니터링한 건수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3개월마다 이 건수를 방심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매월 단위나 이런 것을 주기를 빨리 개선을 하도록,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미옥 위원 주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보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심의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환류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MOU,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OU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심의를 안 하자고 협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그래도 어쨌든 수치적으로 국민들이 '아, 저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에 그런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 질의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그럴 때마다 여성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용어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방송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옛날에 권인숙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권인숙 사건이 아니라 문귀동 사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주의 용어를 남발해서 어려움에 더 빠지게 한다라든지, 사실은 나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도 보면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성폭행을 한 학부모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피해자 위주의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슴 아픈 것을 더 후벼파는 그런 일이 방송에서 더 이상은 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음 국감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고받을 수 있게끔 최단 시일 내에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내용인데요. 국무위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모든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각 부처에서 국무위원이……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듯이 각 부처별로 장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러면 그 실시한 실적을 조사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지나갔나요?

다음 질문은 새일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님이 약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새일센터가 10년 넘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취업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인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고급인력에 대한 재취업, 경력단절 문제 해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금 보면…… 오늘 올라온 보고서에도 보면 계속 국감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하겠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6000억이 넘는 여가부 예산에서

700억이 넘는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사업으로. 그러면 10%를 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10년 동안 아무런 개선이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약간의 개선을 개선이라 하지 마시고 좀 시대의 변화라든지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전향적인 완전 재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과 생각이 어떠신지, 방안이 있으신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예산은 한 해에 약 439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68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급교육과정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맞춤형을 요청하면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경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굉장한 형태의 전문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직종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용을 보고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잠깐만, 자료화면 하나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문미옥 위원 잠깐만, 이것만 지금 이어지는……

○위원장 남인순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또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타 부처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하는 느낌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든 것은 그럼으로 해서 더 장관님과 다른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금은 더 주도적으로 일을 끌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성폭력 범죄가 음주를 이유로 감경받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흑산도 여교사 사건에서도 봤었지만 여성 관련 성범죄의 상당수가 음주 후 주취폭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 여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 음주·약물 등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게 음주를 핑계를 대면 강력범죄 형량이 감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때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음주를 핑계로 해서 감형이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되어서 음주에 감형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용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최근 5년 동안에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0%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어요.

여기서 검찰의 처분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아예 불기소를 한 것이 40%가 넘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검찰 다음에 법원 판결내용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3만 7000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 5만 5000건 이상은 불기소 처분으로 아예 처벌받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에 넘어가면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퍼센티지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나 이런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다문화가

족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세대 결혼이민이나 귀화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세대 수가 벌써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2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니까 주로 고등학교 이전까지에 대한 사업들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을 하고 우리 국민으로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계에서도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다문화자녀들이 이제 매년 한 사오백 명 정도 군에 입대 시작을 했고 이 다문화자녀들이 취업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진입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해서 취업성공패키지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신용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신용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음 화면 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가부가 2015년에 일단 조사를 해 놓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취학률이 고등학교까지는 다문화가족하고 아닌 가족하고 차이가 4%인데 고등교육기관에 가면 12.8%로 4배 이상 격차가 생깁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기 문제가 되는 게 재학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비율이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도 2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표본대상이 14세부터 24세여서 19세 이후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의 정확한 자료 확인이 어렵지만 저게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여가부가 아직까지 저것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학진학률이 70%인 데 비해서 훨씬 다문화가족 진학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취업률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에 따른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 2세 지원을 너무 연령이 어린 쪽에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고등학교 이후에 실제로 우리 사회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러프한 계획이라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다음에 또 다음 것을 하나 보여 주세요.

이 자료가, 제가 사실은 지적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가부에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 등재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가 '일본군위안부 지원 및 합의 이행' 이렇게 한 게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일본군위안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자료도 그렇고 위안부쉼터,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게 사실은 일본군위안부라고 쓴 것은 일본 측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안입니다. 우리가 쓰는 문안은 위안부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자료를 섬세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피해자 할머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님,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강은희 장관님을 비롯한 권용현 차관님,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규모가 1조 원도 채 되지 않는 가장 열악한 부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절반은 여성이고 나아가서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맨 끝자락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주요과제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47개소를 운영하면서 2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13만 명 정도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147개에서 14만 명 취업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한 49.5% 정도 지금 취업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은 통계에서는 2014년도 대비 2015년을 비교해 봤더니, 원래 우리 여성경제활동인구가 M자이지 않습니까? 20대가 높고 30대가 줄고 40대가 늘어서 이것을 30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경력단절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나타나거든요. 20대와 30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경력단절여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비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어떤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력단절 부분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M자형에서 20대·30대에서, 우리가 사실은 30대에서 경력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증가가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우리가 신경 써서 경력단절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것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저랑 이견이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상담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해서 취업도 시키지만 또 취업 후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취업 후 사후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또 경력 개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설계라든가 이런 밑그림이 그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일센터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얼마나 그 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떠난 후에는 어떤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이동을 밟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적해 놓은 정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1년 이내에는 계속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 이후 회사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직 상황들을 전체 다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약 54%가 유지되고 있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인원이, 그리고 63%까지가 전부 다 무기계약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턴으로 취업한 일부 여성분들이 인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

금 조사를 해서 통계를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60여 %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것이 이제 등록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규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까지 다 가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규직은 고용보험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들어가야지 저희 e새일센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지금 가입되어 있고 4명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인턴이나 이런 직종으로 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도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용보험조차도 가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시간제 일자리라든가 비정규직으로 또 취업하는 분들이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조차도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데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는 이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고민이라도 좀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 아니,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의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질의에 없었는데,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다 훑어보니까 어디는 위안부 문제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위안부 피해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들쑥날쑥한데 심지어 법안 발의한 데에도 피해자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뭐 가해자 신경쓸 것 없잖아요. 그냥 피해자를 다 붙이면 별로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김제남 의원님이 2015년에 발의한 법안도 그냥 위안부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것을 넣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이것 말 나온 김에, 위안부, 컴포트 우먼이라는 말만 들으면 진짜 소름이 끼치거든요. 다른 말이, 성노예가 사실은 맞거든요. 섹스 슬레이브가 맞지 컴포트 우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단어를 또 다 바꾸려면 외교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나라 안에서만이라도 이게 성노예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서도 그렇게 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데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컴포트 우먼이라는, 위안부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의견만 들어 주시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하나만 짧게…… 아니면 질문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아니, 끝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인숙 위원 제가 사실 오늘은 미혼모에 대해

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다른 질문은 다 빼고. 미혼모,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런 아이들을 많이 접촉을 한 것이,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아주 여리여리한 10대 커플이 와요. 물론 결혼 안 했지요. 알바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심장병까지 있는 애. 걔 치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 안 내고 했지만, 집에 가는데 과연 애네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했고 또 제 주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애란원이라든가 미혼모시설에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 옆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통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이런 아이들은 또 통계에 안 들어가니까 또 입양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문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들에서도 미혼모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애네들이 보험이 있어도 안 쓰지요. 또 감추려고 부모한테도 안 알리고 집 밖에 나와서, 가끔 사망까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전검사는, 산전체크는 물론 못 받고 아이도 아무렇게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병원에 가서 제대로 못 낳고 산후관리도 못 하고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결국 이 아이들을 지우거나 버리거나 입양하거나 그냥 할 수 없이 낳지요. 그리고 낳은 다음에 버리는데, 이것 제가 이런 미혼모 아이를 조장하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성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강서구인가 어디에서 미혼모 아이들, 미혼모 다문화 임산부는 진료비를 안 받고 병원하고 MOU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반가운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의사들 중에서도, 원래 분만료 많지 않으니까, 그것 받아 봤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널리 퍼뜨려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산전 케어도 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그래서 산모와 아이 둘 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이도 위험하지요, 이렇게 된 아이들.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는 그런 것을 좀 여가부에서 나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집에 못 있고 가면 1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6개월 연장하게 이제 좀 증가되었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2년까지 있는데 2년 후에도 또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한없이 연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는데, 하나 참 굉장히 흥미를 끄는 뉴스가, 일본 지자체에서는 하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고 아이도 없으니까 시골의 요양시설에 취직을 시키면서 이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그러면 사람이 둘이 늘잖아요.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요양원에서 이런 것을 보장하면서 양육비도 주고 집세도 주고 몇 년 동안 취업을 보장시키고 인구도 늘고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미혼모 아이라고 다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상담을 해 보면 지우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지우는 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불법으로 하니까 더 위험하지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는 안 해 주니까 찾다 찾다 해서 어디서 지워 주느냐 그래서 찾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러는데 상담을 제대로 하면 안 지우고 낳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미혼모들이 많아요. 또 아이 낳은 다음에 버리지 않고 또 상담을 해 주면 내가 키우겠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일단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 얘기까지는 할 것 없고 그것을 없애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가, 미혼모들이 그런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애네들이 굉장히 편견에 시달리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에서부터 또 아이 키우는 것, 취업은 상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절대빈곤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법이 필요하면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미혼여성들을 돌보는 기관

이 2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2세아까지 보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자시설이 별도로 있는데요. 전체 시설이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인숙 위원 아까 양육비를 잊어버렸어요.

양육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금 올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인숙 위원 한 달에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15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미혼모시설이 평균 80%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해서 미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미혼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게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출산 이후에 모자가정으로 있으면서 2년 이후에는 또다시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초수급이나 이런 데서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인숙 위원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한국형 모델로 일본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안부라는 명칭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라는 표현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 말을 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숙 위원 예.

○위원장 남인순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가질의는 그러면 언제……

○위원장 남인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못 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윤종필 위원 오전에 제가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윤종필입니다.

여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위안부 할머니들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립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우리가 지키지 못한 나라, 그 아픈 역사 위에 한 획이 그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진정한 공감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아파 보고 나서야 환자를 간호하는 데 훨씬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해결해 주는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할머니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령이신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들께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살아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어제 한 분이 작고하셔서 현재 마흔한 분 계십니다.

○윤종필 위원 그분들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89.5세입니다. 굉장히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윤종필 위원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합의를 발표한 지난 12월 이후에도 네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늘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협상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양국 간의 외교 간 협상은 다시 협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러면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하고 공식문서화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외교협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거기에 적절한 형태의 양국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문서화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윤종필 위원 일본과의 합의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년간 언쟁만 있었을 뿐 실제로 협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결과물도 없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게 할머니들은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만 안은 채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정말 큰 한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협상 전이나 협상과정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외교부에서 수차례 피해자 할머들을 방문하셨고 단체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당일 전날에도 관련된 단체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협상과정에 반영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수차례 외교부에서 피해자분들을 방문하셨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이 상당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그럼 협상 결과에 대해 대다수 피해자와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개별마다 개개인마다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당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 협상은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오랫동안 투쟁을 해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럼 지금 90세에 가까우신 할머니들이 끝까지 편안하게 사시다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협상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담뱃값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뱃값 인상 논의가 있을 당시에 인상의 근거로 거론되었던 것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었습니다. 담뱃값 올리면 수입 없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기 어려워져서 청소년들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 기대를 했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런데 담뱃값도 인상되었고 세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으로 여가부에서는 이 사업을 펼칠 수가 없지요, 이 기금으로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흡연·음주율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금연·금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술·담배 불법 판매 모니터링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늘어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청소년들한테 술·담배를 파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국방부 장병들의 금연, 예방사업 펼칠 때 2014년 8억이고 2015년 50억, 2016년 49억 원의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정부 간에는 직접 예산이 오가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금연·금주사업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음주나 담배 금연에 대한 캠페인을 주로 하고 그리고 판매업자나 판매단속을 위주로 일을 했었는데요. 금연이나 금주에 대한 교육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종필 위원 청소년들이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1차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을 만나 뵙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동의라기보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장 남인순 공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거의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들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분 만나셨고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정부의 의견에, 정부가 협상해 온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최근에 재단 준비위원회에 계시는 설립 위원장께서 여러 분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그 경위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왜냐 하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혼선이, 정부와 국회 간에 서로 혼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을 만나셨고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정부의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것을 표하셨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서 작년에 어쨌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계속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한 것이다, 최선의 협상이다라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입장이나 또 저희 국회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군의 주도하에서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장관이신 조윤선 장관도 유엔에 가서 한 발언 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해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가 안 되는 많은 정치인들, 여기 국회의원들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장 남인순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 예산을 분명히 4억 4000을 했다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고…… 암만 이것이 민간의 주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애초에 정부가 상당히 주도를 하면서 또 그런 의지를 전임 장관들이 표명을 했고, 또 4억 4000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들한테 주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보통 여성가족부가 하는 민간사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성격은 아닌 거지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 것이고 그것을 민간이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월 31일 날 한·중·일 9개 단체가 2744건을 지금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재 신청된 부분이 등재가 될 때까지는 또 많은 외교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래서 그냥 예산을 이것은 민간 주도니까

2016년 주려던 예산도 빼고 그다음에 2017년 예산도 전혀 편성 요청하지 않은 이런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조하셔서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한 번 숙의를, 숙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살펴는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보충질의는 여야 3당 간사 간의 합의로 4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남녀 임금격차가 계속 지수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요. 특히 장관께서, 이게 여가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어떤 차별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를 들면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 같은 것을 위한 연구를 한다거나 이미 연구는 상당히 되어 있기도 하니까 뭔가 지침 등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료들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의외로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략 나온 내용으로 모든 남성의 평균임금과 모든 여성의 평균임금이 37% 차이가 나 있고 이것은 여성이 경력단절 되어 있는 부분과 또 대부분 임금근로자의 고위직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다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실제 동일가치에 대한 동일노동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현장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게 진단이 되어야지 진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 부분이, 자료 제출돼 있는 자료 건도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동일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연구뿐만 아니라 아마 찾아보시면 연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 예를 들면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하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 부분은 통계청장과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개발정상회의에 가서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터 라이프 포 걸스(Better Life for Girls)라고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구상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에 5년간 2억 달러의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외교부와 ODA 자금을 통해서 소녀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우리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외교부를 통해서 ODA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지원금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저희가 OECD 가입국으로서 이런 국제적인 구호 책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서 깔창으로 생리대를 까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도 비교가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장관께서 조금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청소년정책위원회라도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관계부처 부분 좀 독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깎여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작년에 보건복지위에서 33억 편성이 삭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에서, 책임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몇 개 더 있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제가 혹시 장관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 특정 사건, 당해 사건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현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피해자로 한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대책이 나왔고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관님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여쭈어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강남역에 가서 그렇게 추모 행렬을 이룬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강력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범죄,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 혐오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달해 있고 그것이 폭력범죄에까지 이를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 붙여져 있는 메모 내용을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장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번 지금 일련의 사건, 강남역 사건이나 부산의 묻지마 폭행 사건이나 한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 기인한 그런 걱정스러운 새로운 현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까지 강남역 살인 사건 외에도 여러 여성 폭력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생명이 훼손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또 우리 사회의 제반 인식 개선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도하게 성적 대결 양상이 되어서 또 다른 범죄에 당위성을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이지 전체 여성 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장관님 견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인데요. 제가 많은 불안해하는 여성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강남역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걱정을 하고 공감을 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력범죄라서가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시켜 달라, 경찰력을 더 해 달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성을 혐오하는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고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 특정 피의자가 조현병이 없다거나 혹은 예전과 같이 생각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실 방침은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현재 대책에도 여성 관련한 그리고 아동·노인 이렇게 취약한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형에 대해서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대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약자일 경우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입법을 통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견해는 여성 등 소수자를 혐오해서 그 혐오로 인해서 생긴

범죄를 가중처벌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위원님 제가 이게 여성 혐오 범죄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혐오에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혐오만으로 상대를 훼손하거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태섭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혐오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안녕하세요? 여교사 집단 성폭행을 불러온 잘못된 성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음성 재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죽 화면이 가는 거니까요. 보시면서,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나오나요?

지난해 12월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자료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소라넷이라는 음란사이트에 일부 남성들이 집단 강간하는 글, 그리고 몰래카메라 사진 등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는 실태가 공개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기준 소라넷에 올라온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약 4만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사이트에서는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들의 성적 놀이 대상에 불과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소라넷 폐지 운동도 벌어졌고 결국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이행점검회의에서 이런 음란사이트 문제를 잠깐 언급만 했지 경찰청에 단속을 촉구하거나 또 음란사이트의 불법성을 질타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의 폐지 여론으로 소라넷은 금년 6월 6일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넷 문 닫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삼화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 화면을 보면 위 화면은 남자 대학생들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 일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여자 후배를 쉬운 성적 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게임물 광고인데 여성을 남성의 명령에 복종하고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한 것인데 위는 안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경찰관과 데이트를 하라는 경찰청 광고이고요.

아래는 성희롱을 농담으로 잘 받아치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면접 질문 모범답안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의 성을 오락 대상으로 취급하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안 섬마을에서 벌어진 여교사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서 원인을 지역적 특수성이니 또는 일부 남성들의 일탈같이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의 화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일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지역별입니다. 지역별 발생 건수인데 그 표를 보면 매년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물론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같은 대도시가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섬마을의, 폐쇄적인 섬마을이기 때문에 집단 성폭행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진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왜곡되고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나 기관 단위의 성범죄 예방교육을 넘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악을 금

치 못하고 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로 3개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사각지대 없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자.

그래서 우선 당장 교육부에서도 교과과정에 여성 폭력이나 그리고 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반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하게 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제반 인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 관련한 범죄들은 단순하게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를 고쳐나가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경찰과 관련한 범죄수사를 하는 법무부 쪽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관련 양성평등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새일센터의 성과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한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14만 명 정도……

○문미옥 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에는 13만 명 수준인데요. 그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58%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후와 12개월 후를 보면 고용보험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한 4만 명 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기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고용보험이, 정부 부처가 예산을 들여서 여성을 취업시켰는데 어떻게 고용보험도 안 된 일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예산을 들인 사업의 성과라고 보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용보험조차 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실 때 여성들의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 계속 하시는데 정규직·비정규직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고용보험조차 되지 않는 그런 취업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감에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성들의 취업을 민간의 그런 일개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것 정도의 시늉만 하고 계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문미옥 위원 저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기 때문에 짧은……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24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 혹은 취업상담을 해서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취업의 질적인 부분보다 좀 더 우수하고……

○문미옥 위원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는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R&D 분야로 취업시키는 데 최장 3년, 연간 1인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무를 하지 않는 미래부보다는 소극적인 그런 방식의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으로 오히려 아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질 나쁜 일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부에서 하는 그런 고용훈련 프로그램도 저는 과학기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미래부가 그런 과학기술의 베이스가 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이 경력 단절된 부분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부에서 하시는 일을 다시 재편하거나 체제 자체를 완전히 개선해 보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의 기본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맞춤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미래부처럼 과학기술에 전담되었던 분들은 거기 가서 고용훈련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그 학력 수준이나 그전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들에 맞추어서 훈련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선택제를 원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미옥 위원 시간선택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시간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처음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미옥 위원 그러면 좀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도 그냥 덩어리로 쓰지 마시고요, 구분해 가지고 이 7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떤 분야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700억이 아니고 위원님, 439억이 지금 새일센터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문미옥 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6년에 740억 6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예산 계획이 있다고 지금 계획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문미옥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비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일단 이런 비용만큼 상대적으로 저희 전체 고용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문미옥 위원 고용 상황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가 앞장서는 사업에서부터 질 나쁜 일자리로 여성들을 계속 몰아넣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나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물론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센터를 찾는 분들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미옥 위원 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선택과 집중 된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도 또 운영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올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중 두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경미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동·청소년 3월 달에 판결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의료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10년 취업제한을 받은 것은 직업선택 자유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났고요.

○박경미 위원 그다음 4월 것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4월 달에는 아동·청소년 부분에 해당한 분들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그 두 가지 일입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성인 대상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잘 읽어 보면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일률적인 10년 적용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범죄자

에 대해서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나 성범죄의 유형이나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고정하는 것이 지나치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인 심사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헌재 의견에 따라서 여가부에서는 형의 실효기간 10년 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해서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그 개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는 오히려 10년을 초과해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예정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경미 위원 그런데 여가부가 5월 9일 광역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봐 주시지요.

이런 취지는 무시한 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덩그러니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접수한 광역단체들은 동일한 내용을 담아서 기초단체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그대로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별 제한 없이 가능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한 달 후에 이를 번복하는 공문을 6월 2일에 시행을 해 주셨지요.

저는 이런 오락가락이 뭐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위헌결정과 더불어서 취업제한의 근거법률이 즉시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비상상황이고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상의 규제조항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법 규정의 공백기를 철저히 메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공백기간에도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공문 부분은 우리 부에서 좀 소홀한 부분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 여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거의 절반 가까이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여성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 생리대 문제를 여성의 보편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구상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고, 또 작년에도 19대 국회에서 김명연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기업과 해서 민·관 협력 차원으로 1차 대책을 세웠고 또 올해에도 추가대책을 세웠는데요.

○이정미 위원 제가 저소득 여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여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편적 복지로 가기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구상이나 고민은 있어 보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잡히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층이 18만 8000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이번 사태로 인한 대책, 소위 청소년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여성층들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그것은 필요를 느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18만 명은 지원하기에 예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

고 5만 명 정도를 추산해 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편화하기에는 좀 아직은 더 검토를 해야 될……

○이정미 위원 18만 명에 대한 보편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18만 명도 지금 해 보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랑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이 주무부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 대책 논의를 하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생용품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주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논의가 과거에 지속되어 온 논의는 아니라서 주무부처의 명확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정미 위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언제부터 이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방송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 부처가 논의……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그게 아니라…… 논의를 하고 있다면 어떤 단위에서 각 부처의 어떤 급에서 모이셔 가지고 언제부터 회의가 진행되어서 그 회의에서 어떤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회의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실무자급의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여성청소년에게 벌어진 일이고 이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총괄 주무부서는 저는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18만 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대책,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 연관 부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장관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지금의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그쪽에서 하고 교육부의 할 일은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량권 안에서 이만큼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정확한 그 숫자도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원도 저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논의가 관계부처들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회의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회의자료를 생성하면서 논의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서 학교에는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정미 위원 장관님,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배치한다라는 얘기, 학교 안에서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지금 상시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비율이 60%~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학교 안에서 보건실에 갈 수 없는, 보건실이 잠겨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담임선생님이 남성인 경우에 아이들이 가서 그것을 지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 전담교사를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만 명의 이 저소득 학생들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체적인 어떤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아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현지에서는 어떻게,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어떻

게라고 하는 여성 부처의 총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남인순 위원님들……

○이정미 위원 이런 부분적인 대책만을 자꾸 내놓으시는 것은 별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임시적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위원장 남인순 시간을 저희가 지켜야 되어서요.

○이정미 위원 차기에 바로 제출받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서면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 오전에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하게 된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민간에서 하고 있기보다는,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문화재청의 컨설팅으로 인해서 기록유산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박주민 위원 그 외에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지 일본의 요청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런 것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잠깐 저기 자료를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뭐냐 하면 2016년 1월 6일 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관련 속기록입니다.

저 속기록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시다 국무대신이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한 것은, 이것에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기시다 외무대신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합의 이행 중에 있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외무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일 장관들이 세계기억유산 등록 신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본 측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본과 저 부분을 얘기 안 한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외교부로부터 어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받은 게 없습니다.

○박주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대통령비서실장의 서면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아까 오전 중에 질의한 부분이, 지금 저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외교부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박주민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국무대신이 자신들의 어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합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일본 정부에서는 믿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속기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글쎄요, 저는……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우리 여성가족부로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박주민 위원 자, 사실상 이 관련 부서는 여가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전혀 통지를 못 받고 있다거나 전혀 얘기를 못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글쎄……

○박주민 위원 일본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타국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바가 있다고……

○박주민 위원 타국에서가 아니라 협상 상대방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협상 상대방이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은 외교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외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국무회의에서 문제 제기하고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남인순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1차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을 보면서 도서·벽지 지역의 성범죄 경각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가부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도 이번 사건 이후에 신안군에 나간 부분을 특별히 조사를 해 봤는데요. 도서·벽지에 매년 10회~20회 정도, 올해도 20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폭력 예방이나 폭력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것을 대폭 확대시켜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작년까지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었던 자료는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보라 위원 굉장히 협소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신보라 위원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도 2016년 6월까지 그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중에 성폭력 예방교육은 7344회로 조사되는데 그중에 도서·벽지 지역 교육은 올해 6월에 확정된 것까지 3년 반 동안 총 33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의 우선실시 대상에도 도서·벽지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말이지요. 비중이 그동안 너무 작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도서 말고 일반 도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나 산간벽지를 좀 더 면밀하게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가 좀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실제 교육을 강화하기로 계획도 지금 잡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금 올해보다 교육을 2배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조정 중입니다.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어제 회의 결과를 보니까 30회 정도를 섬마을 지역에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30회도 좀 도서·벽지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신보라 위원 더 확장한 내용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성폭력 예방교육이 보다 또 잘 이루어지려면 교육의 강사와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이 또 진흥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별도로 준비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여가부 지원도 받아서 해 왔고요. 대상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도서·벽지 사건이 났기 때문에 좀 더 그 점을 주의해서 또 도서·벽지 상황과, 사실은 잘못하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콘텐츠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정부 3.0 정책 수행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 여성가족부 자체 평가 결과서를 살펴봤는데 32개 관리 과제 중에 정부 3.0 정책 추진 노력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평가 점수가 '우수' 1개, '보통' 1개를 제외하고는 30개 관리 과제 모두가 노력도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요정보들을 개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살펴봤는데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자체 평가니까 전체 국정과제 평가 때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부 자체의 기준은 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일차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평가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전체 국정과제 평가에서는 훨씬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자체 평가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지 밖의 외부 평가에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툴(tool)을 그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 부분은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오전에 질문했던 것 연결해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모두의 소유물인 기록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수되도록 보존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이미 문화재청의 컨설팅을 받아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강제징용 산물인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난징대학살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도 아우슈비츠 관련한 기록 유산을 헤센주 정부가 주도해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농식품부·문체부 협업으로 해서 한식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등등, 외교부 해서 이렇게 많은 정부 기관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록물을 등재 신청했다고 등재되는 것은 아닌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유네스코 관련된 기록물들이 혹은 유산들이 등재되는 과정에서 각 정부들의 놀라운 외교 전쟁과 이것이 등재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민간단체가 기록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올렸으니까 되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정말 여성에 대한 폭력 또 인권 또 전 세계에 이런 문제를 길이 남길 만한 인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혹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관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간단체 관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문제 제기 있으셨는데 꼭 진

행해 주시기를, 다시 숙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 교육부라든지 많은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성 폭력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보며)

내려 주십시오. 그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제안드렸던 바는, 지금 굉장히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 여성 인권과 폭력 이런 제목 혹은 그와 비슷한 제목으로 정규 교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규 교과 편성이 어려우면 현재 가사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라도 이것이 반드시 정규 교과목에 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한 개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센터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지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곳들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나,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언제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감 전까지 교육부나 이런 기관들이랑 협의하셔 가지고 여성 인권과 폭력 이 부분을 정규 교과목에 편성하는 이런 방안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포함해서, 로스쿨 그다음에 경찰대학 그런 데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정규 교과로 지금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각급 학교에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서 시범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범이 끝나면 교육청 단위의 인정 교과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정 교과서가 되면 정식으로 교과목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추진을 하고, 교과 영역에 들어 넣는 부분은 교육부하고 잠정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최근 시멘트 암매장사건, 가수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사건과 같은 데이트 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많은 그런 피해자가 총 3만 6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연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371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678건으로 5년 새 2배가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생각보다 이게 피해자 수가 많고 또 올해 2월에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해서 데이트 폭력을 조사·단속을 해서 800건 이상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적발된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부분을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 폭력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를 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 정도로만 여겨 왔던 관념에서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까지 많이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가장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라서 또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남녀 간의 갈등도 줄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 인지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더 힘써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민간기관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트 폭력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갔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가정폭력, 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도 살펴보면서 과거에 좀 관용적이었던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게 의무화되어야 되고 교육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장의 느낌과 그리고 정책을 펼치는 것과의 괴리가 아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게 언젠가는 근절되어야 되는데 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을 투입해야 될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교육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윤종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문서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동조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주시기를 저렇게 따옴표 안에 위안부를 넣는 것이 공식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안부 피해자가 공식적인 단어가 되어야지 '위안부'……

모든 정부 문서가 위안부 피해자를 따옴표 안에 위안부를 넣는 것을 공식 단어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릇된 역사의식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처음에 제가 뒤에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정식으로 좀 길더라도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현 위원 예, 그래서 언론뿐 아니라 정부 문서는 확실하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유네스코 등재 예산 삭감한 것은 장관님께서 지금 당장 답을 못 하시더라도 철회하고 다시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준비했던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외교부의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역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사업,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각 부처에서 성인지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비슷한 것을 체크해서 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정말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각 부처로 전파를 해서, 사실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이 작성되는 규모가 너무 미미해서 이런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당연히 다 짜놓은 예산에 성인지 예산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어떤 모범적인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제안을 하고 각 부처들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여성가족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많이 올라갔지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펼친 국가인데요.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사회·문화·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그와 동시에 또 자녀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원한 두 가지 정책의 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서 저출산도 자연스럽게 좀 더 해결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만큼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에서 좀 많이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2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는 한 19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2900만……

○임이자 위원 1900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이자 위원 자영업자를 빼고……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한 1300만 명 어바우트(about)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일하면서 자기가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가 고용보험을 냄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전·후 휴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도 들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들려면 우리가 수급·지급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18개월에 180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되어 있는 여성들이 굉

장히 많거든요. 비정규직이 거의 여성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에 다 가입되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용보험을 우리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전체가 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험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지 않는 자와……

아니, 일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장관님도 그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택적일자리, 시간제일자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사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보험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답답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고용보험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육아휴직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일시실직 상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동시에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누가 이 부분을 대체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이, 조금이라도 일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시간선택제나 이렇게 시간이 적은 분들이라도 나도 고용보험을 내고 사업주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안산시 단원구갑 김명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여가위에서 딱 두 가지는 꼭 매듭을 짓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여성 위기청소년들한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생리대 문제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그래서 장관께서 업체에 스폰받고 하는 그런 수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번 여가위에서 장관님이 이것 한번 매듭을 딱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성이시고 여가부장관님도 여성이신데 작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가 33억 9000만 원을 이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게 정치적인 현안 때문에 제 날짜에 국회 협의가 안 되면 또 증액이 되어도 다 다운되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정부안에 지금 넣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지금 387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이것 33억 9000만 원을 못 끼워 넣는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은 여가부가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그리고 기재부장관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기재부도 최근에 모 언론에 할 의향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분위기 잡히고 언론에서 이것 막 두들길 때, 국민들이 공감해 줄 때 이것 우선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강하게. 여가부장관님이 여성으로서 이것 하겠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이것 기재부에서 자르겠습니까?

저는 여가부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업체한테 이렇게 후원받고 이런 방식 말고 국가가 책임진다, 이것은 업체의 몫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장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청소년 개인 계좌로 간다든가 또 그게 그 용도로 명확하게 쓰일 수 있는……

○김명연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이,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것이에요. 의지가 있다면 수요 파악, 이것은 이미 통계에 나왔지요, 18만 정도.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현찰로 통장으로 줄 것이냐 물품으로 줄 거냐, 주되 학교 밖 청소년, 학교 그리고 가정 다 수요가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급식

문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여가부 공무원들의 몫이에요. 이것 방법 찾는데 방법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을 주저주저하다가 1년 또 넘고 또 넘고 공무원들 다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을 찾아서 이번 정부 내년도 사업 입안할 때 거기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지 이 전달체계, 수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주저한다, 저는 동의하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이번에는. 올해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담당 국에 있는 국장님 누구세요?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이 방법을 찾으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가 2주일 드리겠습니다, 2주일. 2주일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는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런 방법으로, 과거에 이런 것들 유사한 사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쌀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 죽 찾아봐 가지고, 이 사례를 찾아 보셔서 그 안에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본 의원실로다가 저한테 직접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황진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국장님, 그것 임무 아닙니까? 꼭 하세요.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황진구 예.

○위원장 남인순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오전에 이어서 일·가정 양립 지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육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육아에 관련되어서는 비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양육비 이행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3월에 다행히도 한부모가정, 결손가정의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채무자 관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법령에 따라 2015년 3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출범이 되었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그 17조 항에 보면 양육비를 줘야 할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만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동의를 하지 않고, 만약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고 주소지를 바꾼다든가 어떤 경우에라도 금융정보를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럴 때는 재판을 통해서 추심할 수 있도록 소송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있지요.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서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항적으로는 동의 서면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법적인 강력한 사항을 마련해서, 행정시스템 공유해 가지고는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만 한 가정, 결손가정의 양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오전하고 계속되는 질문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만 12세 이하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좋은 긍정적인 지표가 있더라고요. 소득분위별로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송희경 위원 그 중에서 자가부담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송희경 위원 이것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송희경 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요, 신뢰도가 높아져 가지만 그 선생님들, 아이를 돌보아주는 육아도우미들의 자질과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신뢰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서초구가 실제 영아 아동의 조모에게 지원금을 하다가, 이것이 손주돌보미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손주돌보미 사업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대책은 뭡니까, 서울시의 일이기는 하지만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그것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그것은 만약에 강남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가 그런 중복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위원회 전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서……

○송희경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전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한 많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아를 종일 돌보아 주는 돌보미들의 자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제도라든가 교육의 커리큘럼, 그다음에 외국인 도우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근거 마련,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나 인성문제. 물론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회해서 그런 것은 다 조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파악은 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고 실제적으로 학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감독의 근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고 저희가 총 80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고 10시간 실습을 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1만 7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소수 건수이지만 발생을 하고 민원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더 강화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권미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강은희 장관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첫 번째 질의자로서 처음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일을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의 격려를 이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성운동을 오래 하면서 여가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아까 박주민 위원이 질의한 외교통상부 문건 관련해서 강은희 장관님이 대답하신 것을 보고 제가 심한 문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박주민 위원이 두 번이나 외교통상부에 대한 문건을 얘기했는데 그냥 당당하게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보고를 못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건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았어야 되는 문건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문건 입수를 못 했습니다. 빨리빨리 문건 입수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는 문건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건을 못 받았던 게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이것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가 가만히 있는다고 갖다 주지도 않을 것이고 여가부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잘 처리되는지 못 처리되는지 그리고 여성들의 고통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모르셨다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하고 여가부가 그동안 몇 번 정도 만났으며 어떤 논의를 했으면 얼마나 이 문제를, 바깥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논의를 해서 노력했는지를 그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주민 위원이 제기하신 아까의 그 안건에 대해서도 저에게도 똑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여가부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우리나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강은희 장관님께 심심한 어떤 문제의식을,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혹시 여당 측에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인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춘숙 위원 예.

○위원장 남인순 혹시 여당 측에서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고 오후에도 곤란하신 것 같아서 다른 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할 때 이러한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한 이런 예들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된 것이 다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고하십사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장관님은 특이하게도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길게 하시고 곤란하신 것은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변 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따라서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외교문서 입수하셔서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회의록이나 그동안 외교부하고 여가부가 어떤 의논 하셨는지 자료 저희 방에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한 것 다시 숙고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6월 30일까지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남인순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사실은 답변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여러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예산을, 2016년 예산을 집행을 안 했고 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그 배경이 아까 일본 외무대신의 발언에 보면 어쨌든 한일 간의 협상 내용 안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이 만약 배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제가 19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사실을 그러면 장관은 알고 계셨던 것인지가 제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것을 그러면 알면서도 그냥 놔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을 알아서 2016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고 2017년도 예산도 미편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것을 분명히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뺀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들한테도 할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뭔지를 경위를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발언을 하시고 만약에 보고를 따로 이것저것 파악해서 하실 것이면 이후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박주민 위원님께서나 아니면 다른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한 인지가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인지를 했고 제 답변 태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게 해 드린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네스코 관련한 이면 합의가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어쨌든 이 문제가, 문서상으로도 아까 다 화면에 띄웠기 때문에요. 보셨을 테니까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요청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답변을 이 회의 이후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외교부에 정식 요청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6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미 안내해 드린 것처럼 회의 종료 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사시는 '나눔의 집'과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시어 이분들의 고통을 위로해 드리고 아울러 우리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심의 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미혁	금태섭	김명연	김삼화
김순례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인숙	박주민	송희경	신보라
신용현	윤종필	이정미	임이자
정춘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입법심의관	차인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차관	권용현
기획조정실장	박현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대변인	황윤정
여성정책국장	이기순
권익증진국장	임관식
정책기획관	김중열
청소년정책관	황진구
가족정책관	윤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권승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

우원식 · 황희 · 인재근 · 임종성 · 박남춘 · 윤후덕 · 김민기 · 설훈 · 김정우 · 송영길 · 진선미 · 민홍철 · 심재권 의원 발의)

6월 20일 회부됨